

## REFERENCES

- Grannis, Oliver C. 1972. The definite article conspiracy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37 : 3.
- Jespersen, O. 1933.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University of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Karttunen, L. 1968. What makes definite noun phrases definite ? The RAND Corporation, publication No. 3871. Santa Monica, California.
- Karttunen, L. 1968. What do referentials indices refer to. The RAND Corporation, publication No. 3854. Santa Monica, California
- Lester, Mark. 1971. *Introductory Transformational Grammar of Englis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Oller, John W. Jr. and Redding, Elcho Z. 1971. Article usage and other language skills. *Language Learning* 21 : 1.
- Parrish, Betsy. 1981. A new look at methodologies in the study of article acquisition for learners of ESL. *Language Learning* 37 : 3.
- Whitman, Randal L. 1974. Teaching the article in English. *TESOL Quarterly* 8 : 3.
- Yoon, Hee-back. 1983.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use of article in English.  
영어 교육 25호
- 이기동. 1979. 정관사의 효과적 교수방법. 영어교육 17호

# 교육학 방법론에 재투영된 Comenius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간관

— 소위 'Postmoderne' 논의의 참조점으로서 —

李 根 燁\*

## 目 次

- I. 개념화(연구방법론)
- II.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사상과 인간관
- III. 논의
- IV. 맺는말

## I. 개념화(연구방법론)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도 이룩하여 국가발전에 가시적인 기여를 하여왔음을 보아 왔다. 이는 교육학자들의 끊임없는 이론 개발과 교육당사자들의 실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학 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이의 발표와 간행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학술발표등이 있어 왔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의 지향성(Orientierung) 설정과 교육실천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육을 두고 「철학없는 한국 교육」, 또는 「무철학의 교육행진」이라는 이유있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1970년대까지 경험과학적 연구의 대부분이 영성한 설계였다」<sup>1)</sup>는 등의 진단도 내려진바가

\* 教育學 博士

1) 黃禎奎, “교육학 연구의 방법론”, 「교육학 연구」 제23권 3호, 서울: 한국교육학회, 1985, 11, p.81f.

있었다. 즉 교육학 분야에 있어서도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al) 연구는 있어 왔으나 通時的(통시적 diachronical)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역사성과 현실성의 종합을 통하여, 또는 간·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교육을 전망하는 예지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육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재고와 그 패러디그마(paradigma)의 전환(shift)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발표자는 여기에서 방법론상의 개념화를 통하여 Comenius의 교육사상을 재조명하고 이로하여금 소위 'Postmoderne' 논의의 참조점으로 삼고져 한다.

발표자는 교육학에 관한 해석학적 접근<sup>2)</sup>과 현상학적 변증법적 고찰<sup>3)</sup>에 터한 논문을 제출한바가 있다. 이는 해방후 부터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을 특징지어 왔던 경험과학적<sup>4)</sup> 교육실천과 그 세계로 부터—이는 실증주의적 논리를 통하여 교육이론을 정립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한 통칭으로 수용한다—정신과학적 교육학<sup>4)</sup>의 세계로 시야를 확대하여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외래문화의 보편성에 있어서 평형(equilibrium)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또한 교육학에 있어서의 전래의 'Ismus'와 전통적인 연역적—규범적 제한성 속에서만 안주하지 아니하고 교육 및 사회현실에 대한 변증법적—해석학적 개방성의 길을 열어서 이 길을 통하여 독립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의 이론과 체계를 정립하고 위기(危機, Wei Ji)에 처한 한국의 교육현실극복을 위한 기점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교육학은 교육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며, 이 교육현상은 잡다, 다양, 풍부하며, 여기에는 교육의 현상과 문헌이 포함되며 따라서 방법론상의 다수주의를 수용하며, 방법사용에는 비판의식이 따라야 한다. 교육학방법론에는 해석학, 인간학, 변

2) 李根燁, "헤르바르트의 교육론 연구, '일반교육학'에 관한 해석학적 접근", 「교육학 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 한국교육학회, 1983. 3.

3) \_\_\_\_\_, 「헤르바르트의 교육학에 관한 現象學的 辨證法的 高찰」,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4) Christoph Wulf, Theorien und Konzepte der Erziehungswissenschaft, München, 1979, S. 14. Christoph Wulf는 교육과학의 현대적 이해를 결정짓는 세가지 기본방향을 1. 정신과학적 교육과학, 2. 경험적 교육과학, 3. 비판적교육과학으로 보고 있다.

중법, 현상학, 구조주의, 언어철학, 비교방법, 경험과학 등의 여러 방법론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공통점도 있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 1. 현상학적 방법론

현상학들을 교육에 관련시켜 볼 때 프레즈너(Pressner)에 의하면 현상학은 ‘본질을 직관하는 의식에 관한’ 학으로서 주관, 선입관을 배제하고 본질 자체와 이의 현상적 환원을 추구하고, 현상자체에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밀하게 추구하는 방법의 철학이다. 따라서 Husserl의 현상학은 어떤 철학적 이론체계가 아니라 연구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omenius, Rousseau, Pestalozzi, Herbart 등의 고전적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현상이해와 카테고리의 분류를 통해 교육현상의 다측면을 인식하고 교육학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교육을 보는 시각의 현상학적 일대전환을 시도했다. 필자는 본 논문의 이론적인 전개를 위해서 이러한 현상학적인 학문적인 방법론을 東岩 白南雲<sup>6)</sup>(1985-1979)의 「朝鮮社會經濟史」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를 소위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한국사를 정립했다고 하나 그가 민족주의 계열의 鄭寅普와 미국에서 神學과 역사를 연구한 白樂濶 등의 도움을 받았고 그는 방법론에 있어서 1930년대에 이미 현대의 해석학적, 변증법적 방법에 매우 접근해 있었으니,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렵다.

## 2. 해석학적 방법론

일반적인 설명에서 해석학(解釋學·Hermeneutik)은 ‘이해’(Verstehen)와 ‘설

5) Heinrich Plessner : Zwischen Philosophie und Gesellschaft, Bern, 1953, S. 41.

6)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1, 改造社, 東京 1933, 1-3면 「尙ほ 古文については, 畏友 鄭寅普 教授の 示唆に 負ふところか 多かつた. 更に 白樂濶 教授 に... 便益を 與へられたことに 對し 滿の 謝意を表す ねるて わる.

명'(Erklärung)의 학문으로서 의미파악을 목적으로하는 認識形式이다.<sup>7)</sup> 이는 목적 자유(zweckfrei)이나 의미심장을 추구하며, 중세기에는 기독교 신앙이해가 과제였으나 20세기에는 역사철학이 이의 연구지평에 들어선다. Dilthey에서는 역사의 포괄적인 초이론(Metatheorie)과 역사성(Historität)의 분야가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신칸트학파에서는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에 따른 방법분석 체계화를 추구한다. Weber 등은 해석학적 주제를 사회, 종교와 경제간의 변화관계에 확대시켰고, Gadamer에서는 현대해석학을 특징지을 수 있는 간·학문적(Interdisziplinäre) 용어가 분명히 나타난다. 최근에는 문예사 안에서도 분화하여 심리학적, 역사전기적, 연구경험적, 형태사적, 사회문제설정의 관점에서 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원칙반성(제 2의 질서)을 통하여 철학의 구체화를 지향하며 인간행위와 관련 지어서는 해석학적-실용적(hermeneutisch-pragmatische)과학으로서 교육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해석학은 원전해석, 즉 歷史化된 현실로서의 역사성(Historität)에 대한 역사적-해석학적 연구와 精神的客觀化(제도, 교수계획, 교수활동 등)로서의 현실성(Wirklichkeit)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로 발전되어 왔으며 원전의 의미를 그 成立過程부터 현재까지의 影響史에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교육학을 위한 해석학적 방법론에는 몇가지 詳論이 있으나 Klafki의 기본인식<sup>8)</sup>에 준함이 바람직하다.

### 3. 변증법적 방법론

변증법을 교육에 적용시켜 볼 때 Platon에 있어서의 대화의 기술로서의 dialegesthai는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의 논증근거로서 정위되어 Schleiermacher, Freire, Adorno와 Wolfdietrich Schmied-Kowarzik<sup>9)</sup>등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천의 문제, Hans

7) Harall Holz, Hermeneutik, Wörterbuch der Pädagogik, Herder, S. 62, 1977.

8) Walter Klafki, Hermeneutische Verfahren in der Erziehungswissenschaft, Erziehungswissenschaft, Bd. III, Funkkollegs, Fischer, S. 126-183.

9) Wolfdietrich Schmid-Kowarzik : Dialektische Pädagogik, München 1974, S. 16.

Tiersch의 해석학적 이해와 경험과학적 확인의 변증법적 교차의 문제, 교육을 대립적인 양자의 택일이 아니고 변증법적인 통일 작용으로 보는 Spranger의 입장이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정신과학과 경험과학,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주역(周易)에서 나오는 형이상자로서의 도(道)와 형이하자로서의 기(器),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이성과 감정, 평등과 자유, 공동선과 이기주의, 진보주의와 본질주의 교육, 새교육과 한국의 전통적 교육, 세계동포주의와 민족주의, 목적론적 우주관과 기계론적 우주관이라는 대립적인 이원론의 통합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변증법적 교육학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교육학파라고 하기 보다는 변증법적 사고를 통하여 교육현상을 이론적으로 서술하려고 시도하는 학자들의 노력들을 총칭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4. 영·미에서의 방법론

지금까지는 독일을 중심으로한 교육학 방법론을 논했으나 영·미 편에서의 교육학 방법론을 개관한다. 홈즈(Brian Holmes)는 교육학 방법론에서 ① 선별적문화차용 ② 해설적 통계 연구 ③ 역사적 접근 ④ 사회적 접근 등을 들고 있으나 논제 및 연구 영역의 방대함에 비추어 ① 역사적 접근 ② 사회적 접근 ③ 예언에 관한 기술(記述)적 기초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sup>10)</sup>이렇게 볼때 이는 거의 독일에서의 역사성과 현실성에 기초를 두는 해석학적-변증법적 방법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① 역사적 접근을 첫째로 역사적 사건(fact, Sache)을 통해서 역사적인 원인을 찾는 일과 결과를 예언하는 실용주의적인 시도, 즉 ‘因’, ‘果’의 개념(concept of ‘cause’ and ‘effect’)을 통한 실증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으로는 사실의 배후 원인과 결정 ‘요인’간의 인과관계로 유의하고 다양한 제도를 비교하고 그 저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것으로 본다(해석학적 접근). ② 사회적 접근은 교육과 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교육개혁의 광범한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예언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상은 홈즈의 비교교육학에 있어서의 이원접근(diachotomy)법이다.

10) Brian Holmes, Problems in Education, Routledge, London, 1967, pp.19-48.

1992년의 제 8 차 세계비교교육학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진(北京)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으나 1992년이 '근대교육의 아버지' Comenius(1592~1670)의 탄생 400주년이므로 이를 기리기 위하여 그의 조국 체코슬로바키아로 개최지가 변경되어서 프라하에서 열렸다. 그런데 제출된 Comenius 관련논문은 필자의 것을 포함해서 3편이었다.

- ① Sibjorn Stensland, The Pansophic Educational System of Johan Amos Comenius and the Problem of Epistemological Legitimation.
- ② Karel Rudl, the pedagogical thinking of J. A. Comenius and European education at the end of 20th Century.
- ③ Keun Yeop Lee, Comenius' Humanistic Thoughts and His View of Man. (國譯은 다음면의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간관」으로 추고 전개된다.)

## II.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간관<sup>11)</sup>

— 그의 탄생 400주년에 즈음하여

### 1. 소위 'Postmoderne' 논의와 코메니우스의 사상

점점 가속화하면서 멈출줄 모르고 회전하는 회전목마와 같은 현대 문명속에서 현기증에 걸려 사상(事象)들의 심연(深淵)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 ① 이성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선진공업국가들의 군비증강과 인류멸망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서,
- ②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부패에서 오는 불신에 직면해서,
- ③ 끝모르는 전진과 성장을 위한 전세계적 규모의 환경파괴에 직면해서,

11) 이근엽, “코메니우스의 人本主義 思想과 人間觀”, 「教育哲學」 제10호, 서울: 韓國教育學會 教育哲學研究會, 1992. pp.127-144. 이 논문을 해석학적견지에서 요약한다.

④ 이 모든 현상에 만연되어 있는 근본적인 의구심에 직면해서,

과학과 예술, 정치에 있어서의 다양한 합리성, 즉 이성(Vernunft)이 역사와 사회에 있어서 아직도 有效한가.

‘Postmoderne’라는 논의는 단지 현대이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무엇보다도 이미 알려진 바와같은 계몽과 해방이래의 ‘대서사시’의 좌초와 ‘기술과 과학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에 대한 진단적인 반성으로 보아, 『미래의 대응』이라고 부름이 적절하겠다.

60년대의 사회, 과학, 문화영역에서의 Utopia적 이상주의 뒤에, 70년대의 실패로 끝난 세계개혁 개념에 따른 내면화와 개인화 경향뒤에, 80년대에는 문화와 정치에 있어서의 역전(rollback)이 대두되는데, ‘Postmoderne’논리는 결국 80년대 이후의 징후다.

‘Postmoderne’란 적어도 현대(Moderne)의 자기초월 즉 좌초된 현대의 의식속에서 과거와의 생산적인 융합속에서 미래를 보려는 시도로 보아야 겠다. 여기에서 ‘미래로 돌아가자’(Back To The Future)는 구호아래 Nietzsche와 Heidegger와 같은 사상가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것이다.<sup>12)</sup>

그러나 나는 더 나아가서 Back To The Nature라는 구호아래 400년전에 태어난 Comenius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400년 전인 1592년 3월 28일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모라비아주 동부의 우헤르스키 브로트(Uhersky Brod. 독일어로는 Ungarisch Bord로서 이는 Hungary로 향하는 나루터라는 뜻) 근교에 있는 니브니쯔(Nivnitz)에서 태어난<sup>13)</sup> 얀 아모스 코멘스키(Jan Amos Komensky. Latin어로는 Johann Amos Comenius라고 널리 불리움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하 코메니우스라고 부른다)는 교육학의 이론사에서 볼 때 그 당

12) Peter Kemper, “Postmoderne” oder Der Kampf um die Zukunft, Die Kontroverse in Wissenschaft, Kunst und Gesellschaft,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Main, 1988, S. 7f.

13) Johannes von den Driesch. Geschite der Erziehung und Bildung. Vlg. Ferdinand Schoning/Peterborn 1962. S34.



시까지 실체와 과제는 있되 타학문들의 주변에서 방황하던 교육에 그 본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기에 ‘근대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웠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근대과학의 아버지’ 프란시스 베이컨과 대비된다. 그의 신비주의적 초월주의에도 불구하고 베이컨에 의하여서 그렇게도 열렬히 신봉되었던 귀납적 방법을 그의 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적용 시키려고 시도했으며<sup>14)</sup> 베이컨이 그러했듯이 지식이란 본래 감각을 통하여 얻게됨을 신봉했고 그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와 그 사색에 있어서 실학주의에 터하여 있었기에 코메니우스는 일반적으로 감각적 또는 과학적 실학주의라고 불리운다.

또한 그는 그의 교육 사상을 베이컨의 경험주의적인 자연관과 스토아적이며 기독교적인 자연관에 터하여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자연의 과정(Vorgang)을 따르며,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정(Entwicklungsgang)에 부합되는 ‘합자연의 원리’<sup>15)</sup>를 주장하였기에 자연주의적 교육사상가라고도 불리운다.

경신과 신앙, 즉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동경(Sehensucht)의 념을 가진 그는 한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 왔기에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인간애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니 인본주의적인 교육 사상가다.

그는 그의 주저 『대교수학』(Didactica Magna)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alle alles zu lehren) 가르칠 보편 타당한 교수법을 제창하고 괴에테(J. F. Goethe)가 그의 자서전인 『시학과 진리』(Dichtung und Wahrheit) 속에서 “나도 또한 자연 속에 현존하는 것들을 마음 속에 상정한다”고 말하면서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회 말고는 아이들용의 책은 없다.”<sup>16)</sup>고 높이 평가했던 『세계도회』(Orbis Sensualium Pictus) 속에서 사물과 언어, 문자를 통합하여 흥미있게 정확한 지식을 얻게하도록 시도했으므로 그는 인문적 실학자라고 불리울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코메니우스 이해는 우리가 코메니우스를 그의 사상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정통적으로 수용되어 온 “주의(Ismus)”의 일정한 사고방

14) Robert Ulich. Three Thousand Years of Educational Wisdom.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54. P.339.

15) Johannes von den Driesch. Ibid. S. 42.

16) Johannes von den Driesch. Ibid. S. 40.

식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코메니우스의 해석은 적어도 코메니우스 자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해석자들의 시대적 제약성과 주관적 편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2. 그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간관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계의 관계(Beziehung)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인간관은 이성, 덕성, 경건성이라는 3원법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 3원법은 주로 그의 「대교수학(1632)」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코메니우스의 교육학과 범지적(Pansophy)사상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서가 「범교육론(De rerum humanarum emendation consultation catholica)」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 담론」은 그가 1670년까지 수십년에 걸쳐 완성시킨 범지적 주저이다. Pampaedia는 「대교수학」과 시간상으로 큰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서도 구별되는 책이다. 즉, 대교수학이 교수학(Didaktik)에 대한 탐구라면, Pampaedia는 진정한 의미에서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이다. 따라서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Pampaedia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관련에서 범지혜는 우주적이며, 전세계(Universum)에 관계되는 지혜이다. 이러한 전체 관련성으로 해서 코메니우스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인간이해는 다음 몇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인간

이는 하나님의 전지성(Allwissenschaft), 전능성(Allmächtigkeit), 거룩성(Allheiligkeit), 자족성(Völlige Selbstgenüchtigkeit)에 상응하는 인간의 지혜(Weisheit), 유용성(Tüchtigkeit), 거룩성(Heiligkeit)등으로 표현된다.<sup>17)</sup>

17) Johann Amos Comenius, Pampaedia Lateinischer Text und deutsche Übersetzung, nach der Handschrift hrsg. von Dmitrij Tschizewskij in Gemeinschaft mit Heinrich Geissler und Klaus Schaller, Heidelberg: Quelle und Meyer, 1960, S. 56(Pam. III. 14).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능력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사명을 위한 재능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창 1:26)라는 말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이 자연을 파괴하라는 것은 아니다.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sup>18)</sup>에서 그의 인간관이 극명하게 피력되어 있는 제4장에서 인간의 특성에 관한 그의 3원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즉 영원함을 위한 준비에는 세단계-자기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한 지식, 자기통제, 하나님에로의 지향-가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하나님과의 통일인데,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

- ① 이성적인 피조물 (Creatura Rationalis, das vernunftige Geschöpf, the reasonable creatures).
- ②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는 피조물 (Creatura Creaturarum Domina, das alle andern beherrschende Geschöpf, the ruler over all creatures).
- ③ 창조주의 형상이요, 기쁨인 피조물 (Creatura Creatoris Subi Image, das zum Ebenbilde und zur Freude Seines Schöpfers bestimmte, the image and joy of his Creator)

이어야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3원적인 인간에 대한 요구는 ① 만물을 이해하고 (verstehen), ② 만물과 자신을 지배하고(mächtig sein), ③ 자신과 만물을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께 관련지운다(auf Gott beziehen)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① 이성교육 (Verstandesbildung, systematic education), ② 미덕 또는 도덕성 (Tugend oder Sittlichkeit, virtue or morality), ③ 종교 또는 경건(Religion order

18) J. A. Comenius, Große Didaktik. S. 34(D. m. IV,2) J. V. D. Driesch, Ibid. SS. 41-43.

R. Ulich, Ibid. pp.340-346.

Frömmigkeit, religion or piety)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3원적인 인간의 과제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3원적인 자연의 소질(천성, *Naturanlage*)과 상응하므로 인간은 ① 이성감각, 그리고 지식욕을 갖고 있으며, ② 미덕, 즉 질서와 조화를 지향하며, ③ 종교에 뿌리는 내린 경건의 삶을 영위한다. 코메니우스는 인간의 모든 이로움은 이러한 구원적 요구에 대한 이해에서 보장된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현재와 미래 생활의 초석이며 모든 다른 것들(건강, 원기, 아름다움, 재산, 위신, 우정, 성공과 장수)은—설사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할지라도—하찮은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그는 ① 학습, ② 행동 그리고 ③ 기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육신을 부여한 양친에게도 ① 이성적, ② 품위있는, ③ 성스러운 삶을 요구한다.

## 2) 인간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위치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만물이 상호 질서잡혀 있고 영원한 지혜의 원리에 의하여 상호 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인간도 사물세계의 빛과 질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는 까닭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세계의 모사(*Abbild*)이며 인간을 통하여 세계는 질서있게 보존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은 그렇지 않아 원죄와 더불어 온갖 모순과 타락 속에서 헤메고 있다. 인간의 타락은 세계를 하나의 미로(*Labyrinth*)로 만들어 버렸다. 인간은 이 미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 이성이 흔들린 존재로서 더 이상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모형이며, 진정한 스승인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인간은 바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본다.

## 3) 그의 교육에 대한 자연의 위치

코메니우스에 의하면 올바른 교수학습의 방법은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코메니우스는 그가 자주 언급했던 자연에서 인간의 자연(본성)을 이해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물의 본성도 자연관에서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자연을 따라서’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과정(*Vorgangen*), 특히 식물, 동물과 인간의 성장과정(*Entwicklungsgang*)을 따르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의 과정은 코메니우스에게는 교육의 과정의 유추(*Analogen*)

로 여겨지며 교육자가 인간의 본성을 성장,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교수법의 단서로 간주된다. 코메니우스가 품고 있는 이러한 확고한 교육적 낙관론은 기독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의 기본 성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세가지 개념들을 “없음(Nihil)”, “약간있음(Aliguid)”, 그리고 “다 있음(Omnia)”으로 구별했다. 여기서 Nihil은 짐승처럼 살다 가는 야만인을, Aliguid는 어느 정도의 교육은 받아서 너무 거칠지 않은 민족들을, 그리고 Omnia는 전체가 완전히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오히려 코메니우스의 단점이 원인과 결과의 본보기로서 동물과 인간 사이를 잘못 유추한 것<sup>19)</sup> 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행동주의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에 기인한 것이다.

### III. 논 의

이제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 사상과 인간관을 역사-현실-종합과학적 견지 즉 해석학적 이해에서 논의하겠다.

- ① 코메니우스의 인간관에 담겨져 있는 이성, 덕성, 경건주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독일의 신비주의와 슬라브인의 경건성, 그리고 유태인의 비교(秘敎)가 수세기 동안 혼합되어 공존하고 있던 보헤미아에서 성장했고, 학문의 방향이 중세적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데카르트에 의해 구현된 수학적, 합리주의적 학문의 흐름과 베이컨에 의해서 열렸던 경험적 학문의 흐름과, 신플라톤적이며 신비적 학문의 흐름 속에서 이들을 두루 익히면서도 세번째 신플라톤적, 신비주의적 입장에서 삶의 목적을 정립했던 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시대는 불안, 비인간화, 인간소외, 감각주의, 과물질주의, 영적기아상태, 전세계적인 정치, 사회, 문화 및 기술전반에 걸쳐서 위기에 도달해서 인류멸망의

19) R. Ulich, Ibid, p.339.

정조가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Ich denke, also bin Ich)”과 뉴톤에 의하여서 시작된 기계론적인 우주관은 20세기 후반에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기에는 불충분하다. 여기에는 생태관이 결여되어 있다. 새로운 현실관과 새로운 paradigm가 요청된다. 인류는 1960년대부터 사회적 국면과 정신적 영역에서 일대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정치·사회·문명·기술전반에 걸쳐서 인류멸망이라는 절대위기(Weiji, 危機, danger-opportunity, crisis)에 직면해 있으며 인간소외, 정신질환, 사회병리, 종교적으로 이단화되어가는 열풍(cultism)에 직면해 있는 현대사회와 기계론은 양립할 수 없다.<sup>20)</sup> 더우기 오늘날은 사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며, 이 문제의 중대성을 외면하며 무관심하다. 우리는 전체 문명의 생존을 위해서 범세계적인 문화의 일대변혁을 요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지적, 정서적, 환경적, 실존적 차원에서의 총체적(holistic) 접근을 요하게 되었다.

지난 몇년간의 세계적 위기의 특징은 군비경쟁의 심화라고 볼 수가 있다. 1978년에 세계의 핵 및 무기 개발 생산비는 4,25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후진국에 판매된 반면, 1,500만이 아사했고, 5억의 인구가 기아선상에 있고, 인류의 40%는 의료혜택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수산업과 미국경제의 밀접한 관계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30년 전에는 “atoms for peace”를 외쳤으나 오늘날 전 세계에서 360개 원자로가 위험에 처해 있고 이 위험은 방치된 상태에 있다. 과학혁명, 계몽주의,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문화 가치에서의 중요 paradigm의 변화는 과학적 방법을 유일한 타당한 지식접근으로 보게 되었고, 우주관에서는 기계론으로, 인생관은 생존경쟁으로, 종교관은 끝을 모르는 물질적 추구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문명과 자연에 공히 만족치 않았던 엘리엇(T. S. Elliot)은 서구인의 정신적 불모와 우리 문명의 황무지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sup>21)</sup>

20) Rritjof Capra, *The Turning Point*, Bantam Books. New York, London, 1993, pp. 15-17.

21) T. S. Elliot, *The Waste Land*,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 Y. : W. W. Norton & Company, Inc, 1975, P.2527.

## The Waste Land

T. S. Elliot

## 1. The Burial of the Dead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독일의 관념철학자들의 영향을 다분히 받고 순교자적인 종교적 열정에 불탄던 조부의 영향이 엘리엇에게 미쳐 그는 속악한 물질문명에 환멸을 느끼고 이 붕괴하는 정신문명을 전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적극적인 기독교도가 되는 것이라고 믿고서 그런 태도로 사물을 느끼고 직관했다. 기독교 정신을 체득한다는 것은 인간의 원죄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선악관을 갖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다른 시에서 현대인을 “텅 비어 있는 인간(Hollow Man)”이라고 읊었을 때도 이는 진정 우리 사회가 황무지 상태로부터 부활할 것을 기원하는 마음에서였다.

코메니우스가 데카르트의 수학적 합리주의와 베이컨의 경험주의적 학문을 수용하면서도 신플라톤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세계의 파악에 몰두했던 사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경건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미신적이었으며 무속도 신봉했으나 맹목적인 광신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고유의 무속정신과 더불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문명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총체적(holistic)접근의 길을 예시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②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의 결과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 사회현상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도전들은 천연자원에 관련된

것과 문화적 가치에 관련된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약 3,000년 지속되어 온—어쩌면 인간의 자연(본성)과 인간, 우주관계의 열쇠인—가부장제의 해체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두번째 변천은 화석연료가 인간의 생활에 미친 충격이다. 인류의 전 역사에서 볼 때 화석연료의 시대는 짧고 서기 2,000년을 정점으로 하는 매우 가느다란 띠로서 길게 보아도 서기 2,300년을 종말로 본다. 세번째 변천은 문화적 가치에서의 *paradigme*의 변화다. 유일한 지식접근 방법으로서의 과학적 방법, 기계론적 우주관, 인생관에서의 생존경쟁 및 적자생존(Social Darwinism), 그리고 물질적 발전에 대한 무한한 신앙 등이다.

확실히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 이래 우리 문화에서는 정신(mind)과 물질(matter)을 분리해서 보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을 별개의 것으로 보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가부장제의 소멸,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써 정치, 경제제도의 수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의 가치의 재검토를 요한다. 전체문화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체계를 인간의 태도와 행동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여러가지 문화변동이론이 있으나 중국의 「*里程*」(I Ching, Book of Change)은 투쟁을 극소화하여 조화롭고 평화로운 변천을 주장한다.<sup>22)</sup> “The Turning Point”에 앞서 10년 전에 “*Tao of physics*(物理學의 道)”를 서술한 바가 있는 카프라는 우리시대의 문화가치와 태도를 논함에 있어서 “*Yin*”(陰)과 “*Yang*”(陽)의 개념을 도입한다. 道는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되며, 자연질서는 이 양자간의 역동적 균형이라고 보았다. 중국문화의 통찰은 활동을 우주의 본질적 양상이라고 보았다. 중국철학에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정지는 없다고 보며 *Chuang Tzu*(莊子)도 끈임없는 轉移와 변화의 흐름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도교에서 말하는 “*Wu Wei*”(無爲)는 ‘nonaction’이 아니다. 노자는 ‘無爲’란 자연에 순응, 조화하는 행위와 자연의 흐름에 거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음양의 개념은 음은 반응적, 수용적, 협조적인 행동유형과 연관되어 환경지향적인데비해, 양을 공격적, 팽창적, 경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자아지향적이다. 두 개의 활동은 의식유형과 연관시킬 때 음은 직관적, 종교신비주의적, 비지성적 경험을 중시하며 환경생태중심적이며 종합적이며 총체적이다.

22) F. Capra, *Ibid.*, p.34f.



양은 이성적, 과학적, 직접적, 집중, 분석적이며 판별, 측정 개념화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다.

데카르트 이래의 기계론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시대는 陽의 현실지배하에 있으며 'mind'와 'mater'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는 유대교 및 기독교 전통에 기인한다(창 1:26). 우리를 먹여주고 키워주는 어머니로서의 자연(nature as nuturing mother)은 여성이 그러하듯이 무참히 약탈되고 있다. 양의 자기현시로 우리 사회에는 권력, 통제, 지배가 팽배해 있다. 기술은 통제, 대량생산, 표준화, 중앙관리를, 교육은 경쟁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공격적이며 경쟁적 행동만으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다. 가장 야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라도 동정적 지지, 인간적 접촉, 자발성과 느긋한 긴장완화의 시간을 요한다. 오늘날 우리는 陰과 陽의 反轉의 전환점에 도달했다. 켈슬러(Arthur Koestler)가 "holons"라는 용어를 창조했는데, 이는 음의 통합과 양의 자아현시의 종합에서 조화로운 총체적(holistic) 사회, 생태적 관계의 필요성을 뜻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직관적 지혜의 배양이 경시되어 왔다. American Indian들은 일찌기 직관과 이성의 조화를 각성하고 생태학적으로 훌륭하게 생존해 왔다. 우리의 조상들은 天地人 사상에서도 그러해 왔다. 이것을 코메니우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는 다음장에 나오는 「魏志」의 東 傳과 북미 원주민(indian)들의 풍습에서 더 전개된다.

한기언은 이 문제에 관하여 코메니우스와 老子를 대비시킴으로써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sup>23)</sup> 그는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 제 5장에 나타난 자연관을 '자연에 복종하는 일', 학습에 있어서 '자연을 따라서' 할 것을 예시하면서 코메니우스의 자연관은 스토아적·기독교적인 자연관과 베이컨적, 경험적인 자연관의 결합으로 풀이한다. 그는 老子(579-499)의 교육사상은 '道'와 '無爲自然'이라는 말로 특징지을 수 있거니와 道란 만물생성의 근원이요, 본체를 말한다. 도는 자립, 자존, 영원불멸이며 만물이 퍼져있다. 가장 위대한 실재이므로 이것은 大라고 하고, 들으려도 들리지 않고 붙잡으려도 붙잡히지 않는 초감각적인 존재이다. "바람이 입

23) 韓基彥, "교육의 역사철학적 기초" 서울: 실학사, 1975, 105-11면.

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요한 3:8)"라는 성서구절이 이것을 말해준다. 이를 詩的인 표현으로 “道”라는 말을 쓴 것이다. 노자는 가치론에서 有·無, 強·弱, 動·靜, 進·退, 雌·雄 등에 의해서 후자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이는 holistic이다.

노자가 진실로 추구한 것은 “자연”이었으며 일체의 허식이나 작위를 버리고 소박을 택했다. 앞에서 필자는 도교의 “無爲”는 자연에 거역되는 일을 삼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無爲自然”이란 무슨 일에도 작위를 하지 말라, 무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知足安分이요 不爭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한기언은 코메니우스의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노자에게 찾고 있다.

코메니우스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하여서 논함에 있어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Kant가 그의 정확한 산책시간을 어겼던 것은 Rousseau의 ‘Emile’에 탐닉했을 때 뿐이라는데, 워즈워스도 ‘Emile’을 읽었으나 루소의 가설적인 자연과는 달리 그의 자연은 그 자신의 천성과 경험의 소산이다.

#### Ode :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sup>24)</sup>

William Wordsworth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eity.

There was a time when meadow, grove, and stream  
The earth, and every common sight  
To me did seem  
Appareled in celestial light  
The glory and the freshness of a dream

24) William Wordsworth, Ibid, PP. 1429-1433.

It is not now as it hath been of yore-  
 Turn whereso'ver I may,  
 By night or day,  
 The things which I have seen I now can see no more.

What though the radiance which was once so bright  
 Be now forever taken from my sight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glory in the flower :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behind :  
 In the primal sympathy  
 Which have been must ever be :  
 In the soothing thoughts that spring  
 Out of human suffering :  
 In years that bring the philosophic mind.

위의 시에서 워즈워스가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는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늙어서까지 그러하리니,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을 당시에는 이 말이 당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우스갯소리가 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내면적 자연의 원형을 때묻지 않은 어린이의 심성 속에서 찾으려는 말로서, 노자가 "영아는 반드시 천진함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sup>25)</sup> 라고 한 말과 같은 뜻으로 코메니우스에게 이어진다.

또한 워즈워스가 이 시에서 '하루 하루가 자연으로의 경건에 이어질 것을' 또는 지상의 만물이 '천상의 빛으로 꿈의 영광과 신선함으로', 또는 '죽음을 투시하는 신앙에서, 사색적 정관(靜觀)을 가져오는 시기에'라고 읊었던 것도 그의 내면 세계

25) 韓基彦, 앞의 책, 107면.

의 심볼에 불과하다.<sup>26)</sup> 그는 신플라톤주의와, 독일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자연으로의 경건’은 바로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경건주의 사상의 표현이다. 그는 인간을 어린시절-감각의 시대, 젊은 시절-느낌의 시대, 성인의 시절-사색의 시대로 보았다.

③ 코메니우스의 인본주의적 인간관은 인간과 인간계(Mitwelt)에서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시련과 인간의 비참을 경험했기에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남달리 강하게 느꼈고 평생을 통하여서 잊지도 않았고, 예측할 수도 없었고, 별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조국의 주권회복과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선포와 인간의 자유평등에 터한 국제연합의 실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던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코메니우스의 이 사상의 흐름을 논한다.

명광수려한 영국중서부의 호반지방(The Lake District)에서 자연과의 합일 속에서 자랐던 위즈워스가 젊은 시절에 프랑스에 가서 지롱드(Girondist)혁명당에 공감하고 이들이 다시 보복을 받을 때에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꼈고, 영국에 돌아와서 고향에서 가까운 소위 Manchester 자유주의자들의 본 고장에서 女工哀史를 통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청’을 느꼈고, London으로 망명한 Karl Marx와의 서신 왕래를 통하여 그의 ‘인간해방’의 대의(大義 Cause)에 공감했고, 노예해방을 위해 노력하던 링컨대통령을 지지했던 그의 ‘연민의 정’이야말로 인간과 자연과 인간계에 대한 원초적 공감(primal sympathy)이라고 이해된다. 이 ‘위로의 생각’이 바로 코메니우스의 느꼈던 바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실행했던 링컨대통령은 불운에 갔고, 이 생각은 맑스에 의해 현실적 사회사상으로 구체화되었고, 듀우이의 과학적 인도주의에 의해 보편화되고, New Frontier의 이념으로 이 사상을 현실화하던 J. Kennedy 대통령도 불운에 갔으

26) S. J. Curtis et al., A Short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University Tutorial press, London, 1975, pp, 298-309.

나, 1960년대 케네디에 의하여 힘차게 추진되던 이상주의는 1980년대에 와서는 신 보수주의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집단이기주의(me-first-ethics)로 이행해가고 있음을 세계사는 보고 있다.<sup>27)</sup> 소련과 동유럽의 해체가 세계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한때 보헤미아 출신으로 독일왕을 겸했던 신성로마제국의 카알(Karl) 4세의 이름으로 설립된 프라하의 카알대학교 총장으로 지내다가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이교도로서 화형당해 순교한 종교개혁 전기의 순교자 요한 후스(Johann Huss)를 따르던 모라비아 동포교단(b hmisch-m hrischen Br der Gemeinde)의 종교적, 민족적 자유를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의 전 생애는 거의 망명길에서 지냈으나 그의 저서에는 평화와 희망이 숨쉬고 있다. 그는 근임없이 인간의 잔인성의 심연과 광기와 제국주의적 권력 투쟁에 직면했으나 '빛의 길'의 승리와 인간의 교육 가능성과 국제연맹의 수립을 위한 인간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그의 인간애와 조국애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으로 현실화되고 1968년의 '프라하의 봄'으로 상징되는 체코민족 봉기로 이어지며 그의 세계동포주의 사상은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하여 각각 국제연맹의 설립과 러셀(B. Russel)과 아인슈타인(A. Eienstein)의 제창에 의한 국제연합의 설립으로 현실화된다.

한편 코메니우스의 합자연의 사상은 데카르트-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Cartisan-Newtonian mechanical view of universe)에서 비롯된 기계문명과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인류멸망의 위기에 접한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인류는 1992년 6월 5일부터 남미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즉 유엔 환경개발 대책회의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코메니우스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조국의 주권회복(독립)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위 냉전체제하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또 다시 외부세력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966년 체코슬로바키아 Prague에서 열렸던 제1차 헤겔대회(Hegel-Kongreß)에서 마르크제는 일차원적 사유와 일차원의 사회를 부정

27) Jurgen Habermas, Die Neue Unubersichtkei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V.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5, S. 31.

하면서 그의 부정의 변증법을 설파하였다.<sup>28)</sup>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외부세력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고 감연히 봉기하였다. 신임 당서기장 Alexander Dubcek, 노조위원장 Smorkovsky와 Svovoda대통령 주위에 온 국민이 뭉쳐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Socialism with human face)를 내세우고 저항해서 성공하는 듯했으나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마치 합스부르크정권에 저항하던 보헤미아가 그러했듯이. 일년뒤인 1969년 8월 21일을 기하여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다시 봉기했다. 점령군에 저항하던 Karl 대학교의 Jan Palach군이 분신자살하였고, 같은 학교의 Charovskova양이 적탄에 맞아 Prague 거리의 인도위에 떨어진 한송이 꽃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이 저항을 '프라하의 봄'이라고 한다. 필자가 이 장면을 보고 1969년 8월 21일에 써서 읊은 추념의 시가 다음에 게재되어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9년 11월에 점령군은 물러가고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진정한 주권을 다시 찾으니 400년전에 코메니우스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꿈이 현실화되는 장엄한 순간이었다. 그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서 소위 'Perestroika'(소련판 재건주의 경제정책)를 내세웠음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 IV. 맺는말

월남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의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속출되므로 Johnson 대통령은 무기개발학자들(陽)과 이론물리학자(陰)들에게 명예로운 월남전 종식을 위한 자문을 들었다. 전자들은 고엽제나 핵폭탄을 써서라도 승리로 끝내자는 것이고, 후자들은 도덕적 견지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존슨대통령은 후자들의 자문에 따라 미국역사상 최초의 패전을 맞게 되었다. 카프라는 그 때 차라리 시인(詩人)에

28) Herbert Marcuse. Zum Begriff der Negation in der Dialektik. In : Filosoficky Casopis 3. Prag 1967. hier zitiert : Ideen zu einer kritischen Theroie oder Gesellschaft 3. Aufl. Frankfurt(M) 1969. S. 185.

게 자문을 부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sup>29)</sup> 이는 시인의 직관과 미적인 판단력에 의존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Comenius의 사상은 인간과 神(天), 인간과 自然(地), 인간과 인간계(人)의 관계 속에서의 天地人合一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巫」라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이해된다. 이것을 소위 「Postmoderne」 논의의 참조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

29) Fritjof Capra, Ibid. p.39.

### 第 3 回 國際學術會議

主題：21세기와 한국에 있어서 인문학의 문제와 전망

日時：1993년 10월 11일 (월) 오후 1시 30분

10월 12일 (화) 오전 10시

場所：송실대학교 과학관 대회의실

#### 〈세미나 參加者 名單〉

##### 發表者(發表順)

김광명(송실대 철학과)

김문경(송실대 사학과)

소재영(송실대 국문과)

한승욱(송실대 국문과)

권영진(송실대 국문과)

Bernard HUE(Haute-Bretagne대학)

허세욱(고려대 중문과)

김영한(송실대 교양-신학)

##### 討論者(討論順)

김기순(송실대 철학과)

임병태(송실대 사학과)

김동훈(연변대 국문과)

송하춘(고려대 국문과)

김영호(송실대 영문과)

신현숙(덕성여대 불문과)

김시준(서울대 중문과)

안봉호(한국 성경연구소 소장)



**여 백**

#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열면서

인문과학연구소장      李 準 五

본 연구소에서 인문학 (Humanities)의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이 결실을 맺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회의에 걸맞게 몇 나라의 권위있는 학자분들을 모시기 위해 여러가지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프랑스 렌즈 대학의 베르나르 위 교수님과 국내외에서 명성이 있는 고려대학교 허세욱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위 교수님과 허세욱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학술회의를 준비한 책임자로서 심포지움의 취지와 방향을 간단하게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다루어질 여러 편의 글들은 소재나 방법 혹은 시대적 배경등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공통적 주제는 현재의 인문학의 지평을 반성하고 공통의 관심아래에 총체적인 접근과 學際的 탐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서구의 근대적 학문체계가 들어오면서 인문학이 수용된 지는 100여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인문학이 들어오기 전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규범이었던 전통적인 學(그것을 東洋學이라 부르던 혹은 韓國學이라 부르던 간에)은 그 후 제대로 자기 구실을 못하고 있거니와 서구의 學 또한 우리의 체질에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른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기능 제일주의가 표방되면서 인간성은 상실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름지기 인문학에 대한 진흥방안을 성찰하고 우리에게 알맞는 규범과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가를 묻고 발굴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世紀末的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져 서로간에 異質性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고유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양 극단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물론 세계사적 보편성의 뒷받침위에서만 우리의 고유한 문화는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발표자들께서 연구하신 바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인문학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치면서 그 진흥의 방안도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인문학은 自我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세계속의 자기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줍니다. 일찍이 인문학은 자연과학과는 그 소재와 방법이 아주 다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마는, 인간의 자기해명을 위해선 자연과학의 연구성과도 아울러 이용하여 자기의 내용으로 확장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혼미한 물질주의와 기능주의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해 인간이 공동체의식으로부터 疎外되고 자신에 대한 몰이해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문주의적인 노력없이 다가올 세기를 기계적으로 맞이 한다면, 이는 충분한 자기 점검없이 20세기로 던져졌던 우리의 불행한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東西古今의 知的 文化的 資産을 서로 만나게 하여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사유에 접목시킬때 우리는 미래세기의 주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국제학술행사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지않은 지원금을 주신데 대해 대성그룹 김 수근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